

나치를 피해 탈출한 유대인 아이들의 삶

친절한 분을 찾습니다

줄리안 보저 지음, 김재성 옮김



독일 베를린 프리드리히스트라세역 앞에는 '삶의 열차, 죽음의 열차 1938-1945 (Trains to Life-Train to death) 1938-1945'라는 조각이 서 있다. 작품에는 서로 다른 방향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7명의 아이가 등장하는데, 인형을 품에 안고 가방을 든 채 바베움직이는 두 아이의 모습은 밝기 그지 없다. 반면 반대쪽에 자리한 다섯명의 아이들은 겁에 질린듯 자포자기한 모습이다.

다섯명의 아이는 홀로코스트 기차에 태워져 강제 수용소로 끌려갔다 살해된 유대인 어린이들, 두 명은 동유럽 국가들에서 기차를 타고 영국 등으로 건너가 목숨을 건진 1만명의 아이들을 상징한다.

나치의 만행은 아이들에게는 무방비 상태였고, 부모들은 어떻게든 아이들을 탈출시키려 애썼다. 나치가 점령한 오스트리아 빈의 부모들도 마찬가지였고, 그들은 영국의 일간지 '맨체스터 가디언'에 광고를 내 자신의 아이를 받아줄 사람을 간곡히 찾았다.

"훌륭한 빈 가문 출신의 제 아들, 총명한 11세 남자 아이를 교육시켜줄 친절한 분을 찾습니다. 보거가 빈 3구 힌처슈트라세 5번지 12호." 1938년 8월 3일자 신문에 실린 광고는 당시의 상황을 잘 보여준다.

그로부터 83년 후 '가디언'의 세계 문제 편집자로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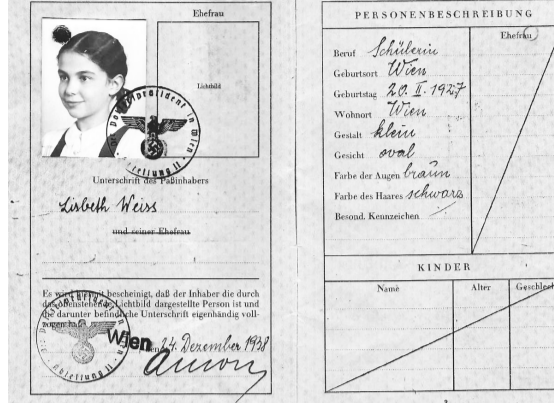
하는 줄리안 보저는 '총명한 11세의 남자아이'가 얼마 전 스스로 생을 마감한 자신의 아버지 로버트 보저임을 알게되고, 아버지와 신문에 실린 7명의 아이들의 삶을 추적하기 시작한다. 신작 '친절한 분을 찾습니다-나치를 피해 탈출한 유대인 아이들의 삶'은 그 결과물이다.



"건강하고 영리하고 음악을 무척 좋아하는 13세 중등 학생"과 "아이들을 무척 좋아하고 바느질을 잘하며 가사를 도울 수 있는 교양 있는 14세 유대인 여자아이" 등 당시 광고에 실린 아이들은 모두 80명. 아버지와 같은 시기에 같은 빈에서 살았던 그들은 어떻게든 살아남았을까, 아니면 부모의 간절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삶을 얻지 못했을까. 3행짜리 광고 이면에 감추어진 이야기를 찾아 저자는 가족의 기억을 소환하고 중국 상하이의 계토, 홀로코스트의 현자인 아우슈비츠-비르케나우 수용소 등 세계 각지에서 펼쳐졌을 이야기를 추적한다.

"공포에 사로잡힌 열한 살 난민으로 영국에 발을 디딘 아버지와의 첫 만남 이후, 나치가 들어가는 성인 남자의 내면에 웅크리고 앉은 겁에 질린 소년을 한순간도 잊을 수 없었다"는 영국의 위탁모 낸스의 말처럼, 저자의 아버지 보버는 따뜻한 영국 부부의 도움으로 명문대에 입학하고 대학교수가 됐지만, 오랜 기간 감춰졌던 트라우마가 발견되기 시작해 결국 스스로 생을 마감한다.

프레드와 프리츠 형제는 빈을 떠난 뒤 아우슈비츠-비르케나우로 끌려갔다. 바로 옆에 있던 친구와 그의



나치를 피해 영국으로 탈출한 리스베타 바이스의 여권. 왼쪽은 로버트 보거. <유진트리 제공>

아버지가 가스실에서 생을 마감하는 모습을 목격하는 등 여러 차례 죽을 고비를 넘긴 프레드는 죽음과 구원을 다룬 회고록 '폐쇄로의 아이들'을 발간했다.

11살의 나이로 부모의 품을 떠났던 게르트루트는 "우리를 진실로 아껴주는, 가족을 향한 끝없는 그리움에 더해 근심과 슬픔과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단 하나도 없는 사지를 파고드는 외로움"을 겪으며 생을 이어왔다.

저자는 "폭력은 단지 시작에 불과하고 전쟁의 진정한 이야기는 수년 수십 년 동안 이어진다"며 "광고의 이면에서 빈 것은 불가피하게도 비극과 참상이었지만 그 이야기들의 대부분은 살아남은 기쁨이 존재한다"고 말한다.

<유진트리·2만3000원>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새로 나온 책

▲지리로 다시 읽는 자본주의 세계사=지리학자의 시선을 통해 기후위기 시대와 자본주의를 이야기한다. 지리학계에서 주목하는 개념인 '다중스케일적 접근'을 통해 세계사를 살펴본다. 지표에서 발생하는 여러 현상의 스케일을 다층적이고 상호 연관성에 입각해 분석하는 이 방법은 세계사 흐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지도와 나침반에서 시작했던 자본주의의 출발부터 네덜란드에 불었던 신용경제의 바람까지 다양한 사례를 예증한다. <갈매나무·1만9500원>



▲우리의 싸움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다=사회가 변화하는 방식은 무엇일까, 나아가 저항과 마찰을 효과적으로 넘어서는 제대로 된 혁신이란 어떤 모습일까. 국내외 복잡한 한국 속에서 민중의 '저항'에 방점이 찍히는 요즘, 파국을 막아서는 저항의 힘을 역설한다. 혁명에 필수불가결한 '3.5% 법칙', '폭력의 문제' 등을 언급하며 올바른 사회 변혁 방법론을 제시한다. <원더박스·1만6800원>

▲알고리즘, 패러다임, 법=현상을 분석하거나 측정, 또는 계산하는 도구로서 '규칙'은 인류가 따라야 할 원칙에 가깝다. 그러나 사회를 통제하고 패러다임을 형성하는 규칙의 진정한 의미는 과거로부터 현대사까지 흐름을 치밀하게 분석해야만 발견될 수 있다. 규칙이란 도구로서의 알고리즘, 따라야 할 패러다임, 통제를 위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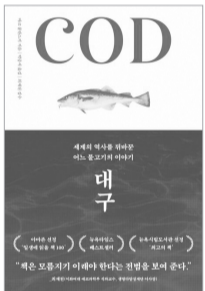
법 세 가지로 구분되는데 이 세 가지 힘이 상호작용하면서 나름의 원칙을 형성한다. 인류사와 함께해 온 규칙의 본질과 의미에 대해 들여다본다. <까치·2만3000원>

▲그림에도 개를 키우려는 당신에게=인파가 붐비는 곳에서는 목줄을 짧게 잡거나, 낯선 개와 인사할 때 상대편 보호자에게 먼저 양해를 구해야 하는 등 반려견을 키울 때는 다양한 규칙이 뒤따른다. 다년간 예능, 관찰형 프로그램 등에서 반려견을 키우는 방법을 알려준 강형욱이 책을 통해 노하우를 풀어낸다. 반려견과 주인이 닳아가는 현상이나 집 안팎에서 지켜야 할 등 반려인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헤다·1만9800원>

밥상 위 생선 대구, 인류역사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

대구

마크 콜란스키 지음, 박중서 옮김



"이놈들은 생존을 위해 만들 어졌다. 다산을 할 뿐 아니라 질병과 추위에 강하고 거의 모든 식량자원을 섭취할 수 있다. 게다가 얇은 물로 찾아가서 해안에 가까이 살아 그야말로 완벽한 상업용 물고기였다."

난류와 한류가 만나는 연안 수심 30m대에서 주로 서식하며, 1m크기 암컷 한 마리 당 300만 개의 알을 낳고, 소금에 절여 건조시키면 단백질 성분이 80%에 달하는 '상업용 물고기'는 될까? 게다가 크기 1~2m·무게 100kg에 이르고, 수명도 20~30년에 달한다. 해답은 대구(大巨)이다.

저널리스트이자 작가인 마크 콜란스키가 1997년 펴낸 '대구' (Cod)는 '세계의 역사를 뒤바꾼 어느 물고기의 이야기'라는 부제처럼 '대서양대구'라는 특정 바닷물고기가 바이킹 시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인류역사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탐색한다. 국내에는 2014년 소개된 후 절판됐으나 최근 독자들의 북 펀딩을 통해 재출간됐다.

식탁에 오르는 생선 대구에 1000여 년 이상의 인류역사가 농축돼 있을 줄 미처 몰랐다. 저자는 중세부터 '머나먼 미지의 해역'에서 대구를 잡아오는 바스크인들과 10세기 무렵 새로 발견한 황량한 땅에 '그린란드' (녹색의 땅)라는 이름을 붙인 바이킹부터 대구 이야기를 풀어낸다. 일찍이 바스크인과 바이킹은 대구를 소금에 절이거나, 건조시켜 오랫동안 보존하는 방법을 깨달았다. 이를 통해 대구시장을 확장시켰고, 현재의 북미까지 장거리 탐험에 나설 수 있었다. 특히 단백질 18% 이상, 지방 0.3%에 불과한 대구는 건조 과정을 거쳐 수분을 증발시키면 단백질 성분 80%에 달하는 '바다의 빵'이나 다름없었다.

북미 대륙봉 가장자리에 있는 대구의 황금어장 '그랜드 बैं크스'는 멕시코 만류와 북극권 그린란드 해류가 합류하는 해역이다. 바스크인들이 영엄비밀로 유지해왔던 이곳이 영국 탐험가 존 캐벗에 의해 발견된 때는 1497년 6월. 그는 '새로 발견한 땅' (New Found Land·오늘날의 뉴펀들랜드)이라 이름 붙였다. 19세기에는 대구가 워낙 많이 잡혀 대구 등을 밟고 대서양을 건널 수 있으리라 상상할 정도였다.

또한 대구는 미국을 독립으로 이끈 매개체다. 1620년 영국의 종교박해를 피해 신대륙으로 이주한 청교도 (Pilgrim)들은 어업을 전혀 몰랐다. 하지만 한세대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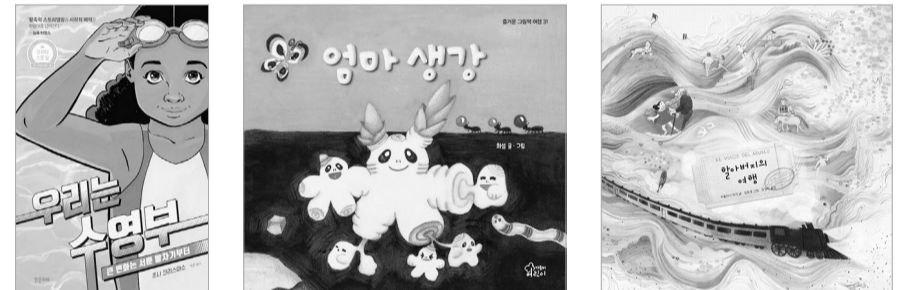
지나 '대구 귀족'이 됐고 국제적인 대구무역 세력으로 부상했다. 저자는 뉴잉글랜드 '대구 귀족'들이 카리브해 서인도제도간 대구 무역 과정에서 영국 제재에 반발해 독립전쟁을 벌이는 역사를 흥미롭게 들려준다. 소금에 절여 말린 뉴잉글랜드산 대구는 서인도제도 설탕 플랜테이션에서 하루 16시간씩 일하는 노예들의 단백질 원이었다. 영국의 제재로 1780-1787년 대구무역이 금지됐을 때 자메이카에서 1만5000명의 흑인 노예가 굶어죽었다고 한다.

저자는 대구와 인류의 시간여행에서 한발 나아가 기후 위기와 생물다양성 감소 문제를 깊이 있게 살핀다. 그동안 간과했던 남획은 이제 직면해 있는 전지구적 문제이다. 특히 '(어업이) 자국민을 중세에서 풍요의 세계로 끌어올린 기적'이었던 아이슬란드는 영국과 3차례 '대구 전쟁'을 벌였고, 영해선을 200마일로 확장한다.

이제 더 이상 동해에서 잡히지 않는 명태(왕눈플라 대구) 또한 대구의 일종이라고 한다. 누군가 한-중-일 중심으로 대구 이야기를 새롭게 썼으면 좋겠다. 북쪽으로 에스파냐 바스크 지방의 소금절인대구 요리 등 각 지역의 다양한 대구 조리법을 수록했다. 대구는 영국 '피시 앤 칩스'의 주재료이기도 하다.

<알에이치코리아·2만8000원>
/송기동 기자 song@kwangju.co.kr

어린이·청소년 책



▲우리는 수영부-예상대로만 흘러가지 않는 삶 속에서 주인공 브리는 고통을 겪는다. 새 학교에 전학온 뒤 수영반에 입단하려 하지만, 물을 두려워하는 까닭에 합류가 쉽지 않다. 아버지가 이 사실을 알게 된 뒤 브리는 주변의 도움을 받기 시작한다. 수영 선수였던 에타 아주머니에게 수업을 받으면서 점차 수영에 흥미를 느끼게 된다. <밝은미래·1만8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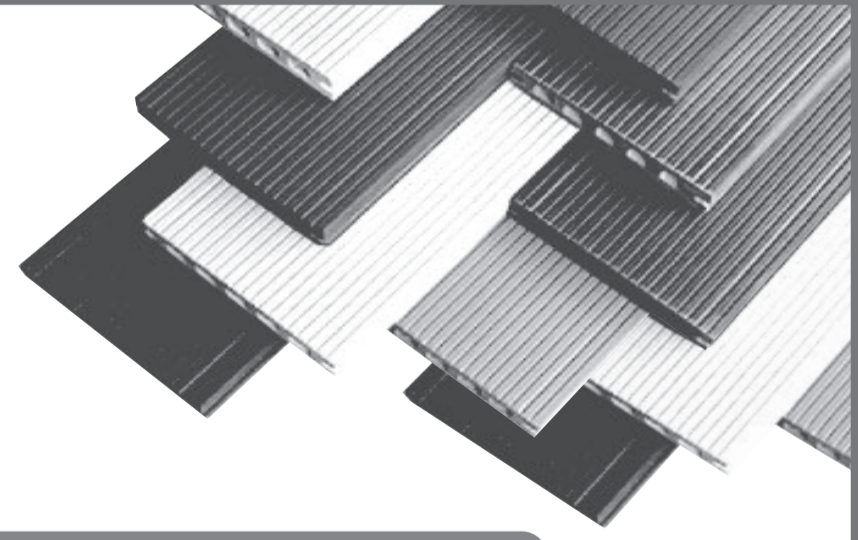
어디에선가 '엄마'라는 목소리가 들려온다. 스스로 싹을 틔우고 강인한 뿌리를 내려야만 생존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통해 점차 외로움을 극복한다. <어린이가문비·1만4000원>

▲엄마 생각=땅속에서 눈을 떴으나 주변이 온통 캄캄하다는 것을 깨달은 어린 생각. 그는 자신이 흙 속이라는 것을 깨달은 뒤 울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 이곳저곳으로 손을 뻗으며 시간이 흐르자

▲할아버지의 여행=시간의 끝에 있는 환상의 플랫폼에서 할아버지는 색색기차를 타고 '여행'을 떠난다. 기억, 망각, 그리움, 고통이 있는 들판을 거쳐 영원한 고향에 다다르기까지 여정을 그림으로 표현한다. 노란 개나리밭과 푸른 은하수가 드리운 공간을 지나며 기차는 죽을 너머 사랑하는 이들이 기다리는 상상의 공간으로 향한다. <노란상상·1만7000원>

"데크의 세대교체!"

불에 타지 않고 물에 썩지 않는 논슬립 디자인데크



기존데크 → 고강도 디자인데크

습기의 의한 부식, 번거로운 유지관리
기존데크 철거 후 디자인데크 시공
국산 원재료사용으로 경제적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데크!